



광화문광장

2023 서울썸머비치

8월 관광이슈

- 연구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연구
- 국내 국제전시연합(UFI) 상반기 국제 전시산업 바로미터
- 국내 서울, 최고의 아시아 레저도시 선정
- 해외 국제관광 회복 현황과 전망(UNWTO)



S.T.I
Seoul Tourism Insight

Seoul Tourism Insight

| 발행일 | 2023. 08. 30.

| 발행처 | 서울관광재단

| 주 소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85(삼일빌딩) 6층

| 전 화 | 02-3788-0877

| 홈페이지 | www.sto.or.kr

| 기획 · 편집 |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

| 디자인 | 누보

CONTENT

I. 서울관광 브리프

1. 기고문	6
2. 서울관광재단 주요 사업(8월)	8
3. 서울관광재단 연구보고서 리뷰	11
4. 국내외 관광·MICE 동향	16

II. 국내 관광동향

1. 한국/서울 입출국 현황	26
2. 주요 국가별 한국/서울 방문통계	29
3. 2022년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통계	30
4. 서울시 관광사업체 현황	32

III. 해외 관광동향

1. 국제 인바운드 통계	34
2. 국제관광 회복세 현황과 전망(UNWTO)	35

I. 서울관광 브리프

1. 기고문	6
2. 서울관광재단 주요 사업(8월)	8
3. 서울관광재단 연구보고서(리뷰)	11
4. 국내외 관광·MICE 동향	16

1. 기고문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생태관광”

서울의 핵심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도림천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지친 심신을 달랠 생태관광이 각광 받고 있다.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이다.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도 생태관광의 대표로 꼽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도림천이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하는 산지 하천으로 영등포구 신정교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한강의 제2지류이다. 또한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 4개의 자치구를 거쳐 흐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관악구청은 도림천을 복개(覆蓋)하여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림천 상류부터 복개 공사를 시작했는데 뜻있는 시민들이 복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분 복개를 결정했었다.

부분 복개 공사가 동방1교까지 진행될 무렵인 1998년, 도림천 복개 공사를 중단하고 도림천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고 도림천 부분 복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었다.

이후 도림천의 자연성 회복과 유량 확보를 위한 민·관·학의 부단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수질을 정화해주는 식물이 식재되고 일부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하였으며 유량 확보를 위해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도림천으로 흘려보냈다.

관악구의 도림천은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복원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도림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지금은 생태 하천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지난 7월 6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그리고 각 자치구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도림천 지킴이’와 함께 직접 도림천 현장에 나가 도림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 제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신림선 관악산(서울대)역에서부터 안양천 합류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도림천과 주변 자원을 활용해 자연과 생태, 힐링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고, 4개 자치구가 연계된 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변감성도시 서울’에 걸맞은 생태관광자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제 도림천은 관악, 동작, 구로, 영등포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에서 서울시민, 더 나아가 서울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수변 관광지로서 새롭게 주목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재편된 도림천을 서울의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생태와 환경 보전을 위해 시민 참여와 행동을 이어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면 서울의 생태환경을 중심으로한 서울관광의 가치 상승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

2. 서울관광재단 주요 사업(8월)

8. August

8월
서울관광재단
주요 일정

- KCON LA 2023 서울관광 프로모션 운영(글로벌 1팀)
-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위원회 MOU 체결 및 발족식(MICE1팀)
- 잼버리 참가자 커뮤니티 센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MICE1팀, MICE2팀)
- 2023 남산 나이트 워크 후원(관광자원개발팀)
- 서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림천 2차 현장 조사(관광연구팀)
-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 간담회(MICE2팀)
- 커리어 페어(공모전 및 취업피칭데이)(MICE2팀)
- 2023 서울 썸머 비치(7. 21.(금)~8. 13(일))(관광자원개발팀)
- 2023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유니버설 서울 투어(관광인프라팀)

7월
서울관광재단
사업추진 결과

- 서울관광재단-고려대학교 안암병원-KazIOR(카자흐스탄) 협약식(글로벌 2팀)
- 2023 알마티 서울관광설명회 및 건강상담회(글로벌 2팀)
- 2023 서울관광 홍보영상 범용편 온에어(글로벌 1팀)
- 2023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 개최 및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MICE2팀)
- 2023년 타 시도 연계 PLUS CITIES MICE 공동팸투어 개최(MICE2팀)
- 2023 대형 기업회의 연계 서울 관광 홍보부스 운영(MICE2팀)
- 2023 서울 썸머 비치(7. 21.(금)~8. 13(일))(관광자원개발팀)
-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관광인프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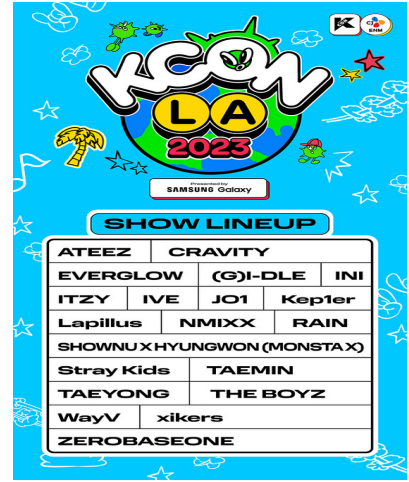
8월 서울관광재단 주요 일정



도림천 2차 현장조사



관광연구팀



KCON LA 2023 서울관광 프로모션 운영

글로벌 1팀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위원회 MOU 체결 및 발족식

MICE1팀



잠버리 참가자 커뮤니티
센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MICE1팀, MICE2팀



2023 남산 나이트 워크

관광자원개발팀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 간담회



커리어 페어(공모전 및 취업피칭데이)

MICE2팀



2023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유니버설 서울 투어

관광인프라팀

7월 서울관광재단 사업추진 결과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



서울관광재단-고려대학교
안암병원-KazIOR(카자흐스탄) 협약식



2023 알마티 서울관광설명회 및
건강상담회

관광인프라팀

글로벌 2팀



2023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 개최
및 서울 마이스 공동선언



2023년 타 시도 연계 PLUS CITIES
MICE 공동팸투어 개최



2023 대형 기업회의 연계 서울 관광
홍보부스 운영

MICE2팀



2023 서울 썸머 비치(7. 21.(금) ~ 8. 13(일))

관광자원개발팀

3. 서울관광재단 연구보고서 리뷰(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연구)

■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연구란

서울 관광특구는 1997년 9월에 이태원 관광특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23년 8월 현재 7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었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한 팬데믹 이후 서울 외래관광객 방문 급감에 따라 관광특구의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관광 환경에 따른 서울 관광특구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서울 관광특구 현황 분석 및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관광특구별 전략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 서울 관광특구 현황

서울 관광특구는 총 7개로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이태원,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이다. 자치구별로는 중구 2개, 용산구 1개, 종로구 1개, 송파구 1개, 강남구 1개, 마포구 1개 지정되었다.

자치구	특구명	지정지역	면적(km ²)	지정일	외국인 방문객 수(천명) ¹⁾			
					'19	'20	'21	'22
중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 지역	0.87	2000.3.30.	13,343	205	71	514
용산구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1997.9.29.	2,979	60	38	226
중구	동대문패션타운	중구 광희동, 을지로 5~7가, 신당1동 일원	0.58	2002.5.23.	13,343	205	71	514
종로구	종로/청계	종로 1~6가, 서린동, 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0.54	2006.3.30.	5,626	86	29	292
송파구	잠실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3.15.	1,360	42	44	145
강남구	강남마이스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4,200	109	107	405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1.13	2021.12.2	5,672	88	53	238

1) 외국인 방문객 수: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제공 KT 이동통신데이터 외국인 방문자 수 기준

■ 서울 관광특구 시민 인식조사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민 및 경기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 관광특구에 대한 인식과 방문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 관광특구 방문 시 가장 만족한 활동은 ‘음식/미식 탐방’으로 이태원(53.8%), 종로/청계(45.5%),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43.9%), 강남마이스(42%), 잠실(37.8%) 관광특구가 응답하였으며,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는 59.5%가 ‘쇼핑’에 가장 만족하였다.

반면 서울 관광특구 방문 시 가장 불만족했던 활동은 ‘비싼 물가’로 강남마이스(62.9%), 잠실(55.3%), 명동(42.3%), 이태원(36.5%), 종로/청계(30.4%) 관광특구가 응답하였으며,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관광특구는 각각 35.5%, 30.1%가 ‘거리/상점 불결함’, 이태원 관광특구는 29.2%가 ‘치안 및 안전’에 불만족하였다.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관광사업체 품질인증체계(서비스/청결 등) 도입(55.8%)’, ‘가격표시제 확대 시행(55.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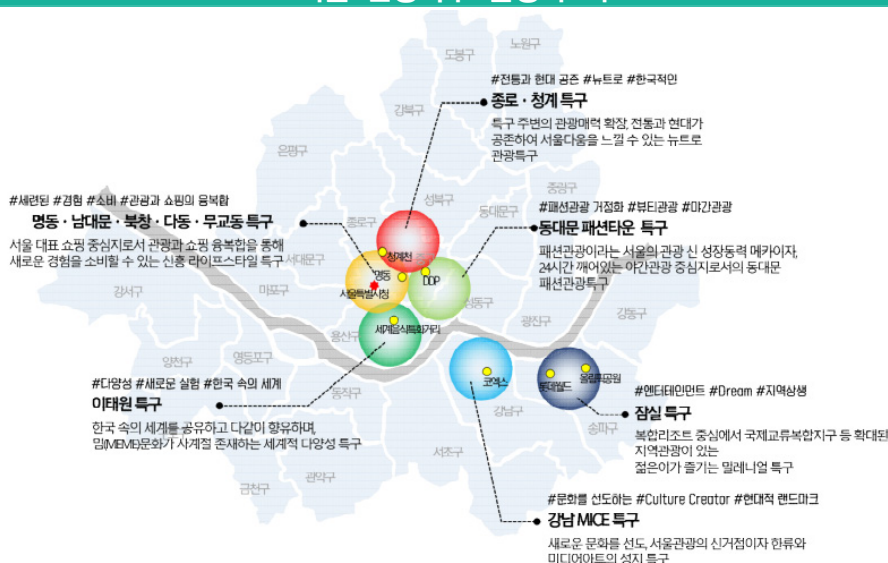
■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모델

뉴노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을 선도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7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비전을 ‘각양각색을 지닌 Beau7iful 관광특구, 서울’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목표로 첫 번째는 ‘내외국인 모두가 행복한 특구’, 두 번째는 ‘뉴노멀 관광이 있는 특구’, 세 번째는 ‘잠들지 않는 특구’로 설정하였다.

서울 관광특구별 특징에 따라 활성화 방향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서울 관광특구 공통사업 9개와 관광특구별 활성화 전략 사업 총 24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서울 관광특구의 도약을 기대한다.



서울 관광특구 활성화 지도



서울 관광특구별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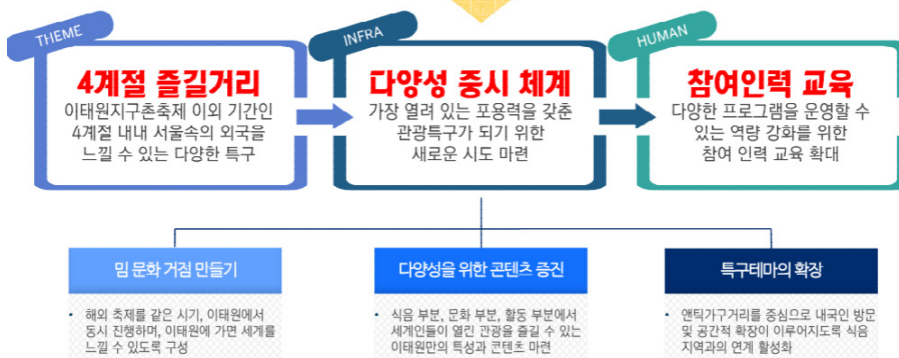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서울 대표 쇼핑 중심지로서 **관광과 쇼핑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소비할 수 있는 **신형 라이프스타일 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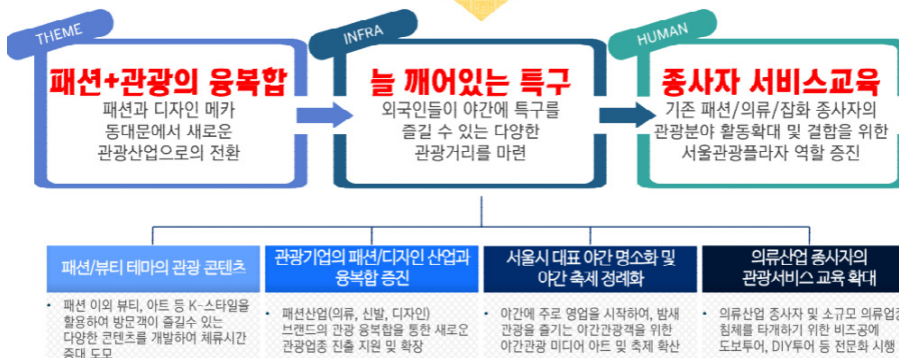
이태원 관광특구

한국속의 세계를 공유하고 **다같이 향유하며, 밈(MEME) 문화가**
사계절 존재하는 **세계적 다양성특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패션관광이라는 서울의 관광 신 성장동력 메카이자,
24시간 깨어있는 **야간관광 중심지로서의 동대문패션관광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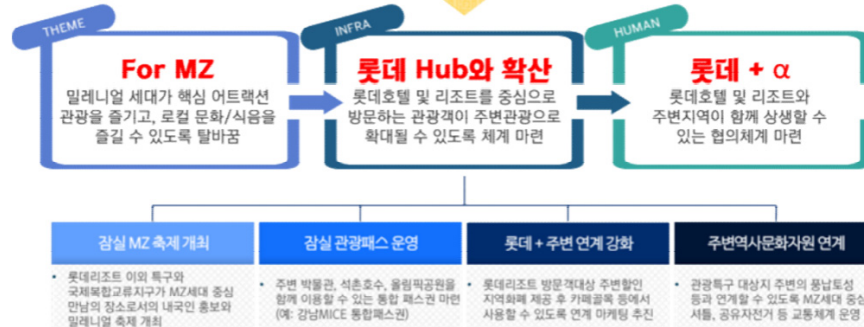
종로/청계 관광특구

**특구 주변의 관광매력 확장,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여
서울다움을 느낄 수 있는 뉴트로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

**북합리조트 중심에서 국제북합교류지구 등 확대된 지역관광이 있는
젊은이가 즐기는 밀레니얼 특구**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새로운 문화를 선도, 서울관광의 신거점이자
한류와 미디어아트의 중심지특구**



상기 내용은 서울관광재단의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활용이나, 재창작을 금지합니다.
연구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외 관광·MICE 동향

■ 국제전시연합(UFI) 2023년 상반기 국제 전시산업 바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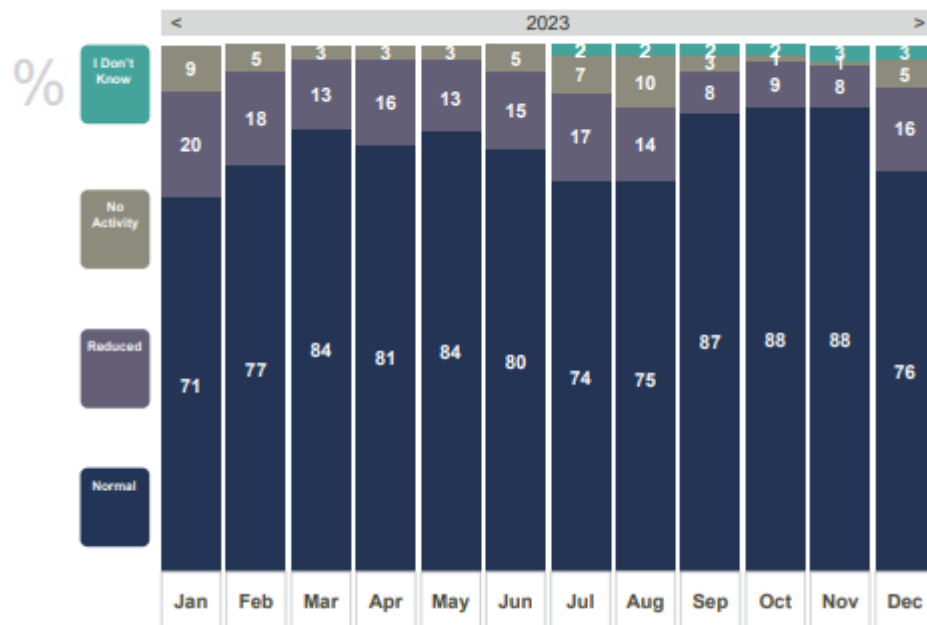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 UFI)은 2023년 7월 ‘제31회 국제 전시산업 바로미터(UFI Global Exhibition Barometre)’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에는 2023년 상반기 국제 전시산업의 현황과 향후 국제 전시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전시연합(UFI)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 세계 72%의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023년 상반기(1월~6월)에는 79%의 기업이 정상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2019년 대비 기업활동의 회복 비율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시 활동 회복’에 대한 질문에서 ‘정상 활동을 영위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국가는 호주(97%), 영국(95%), 이탈리아와 미국(94%), 브라질(92%), 그리고 아르헨티나(90%)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은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상승하여 74%를 기록하였다.

국제전시연합(UFI), 2023년 전시산업 회복 여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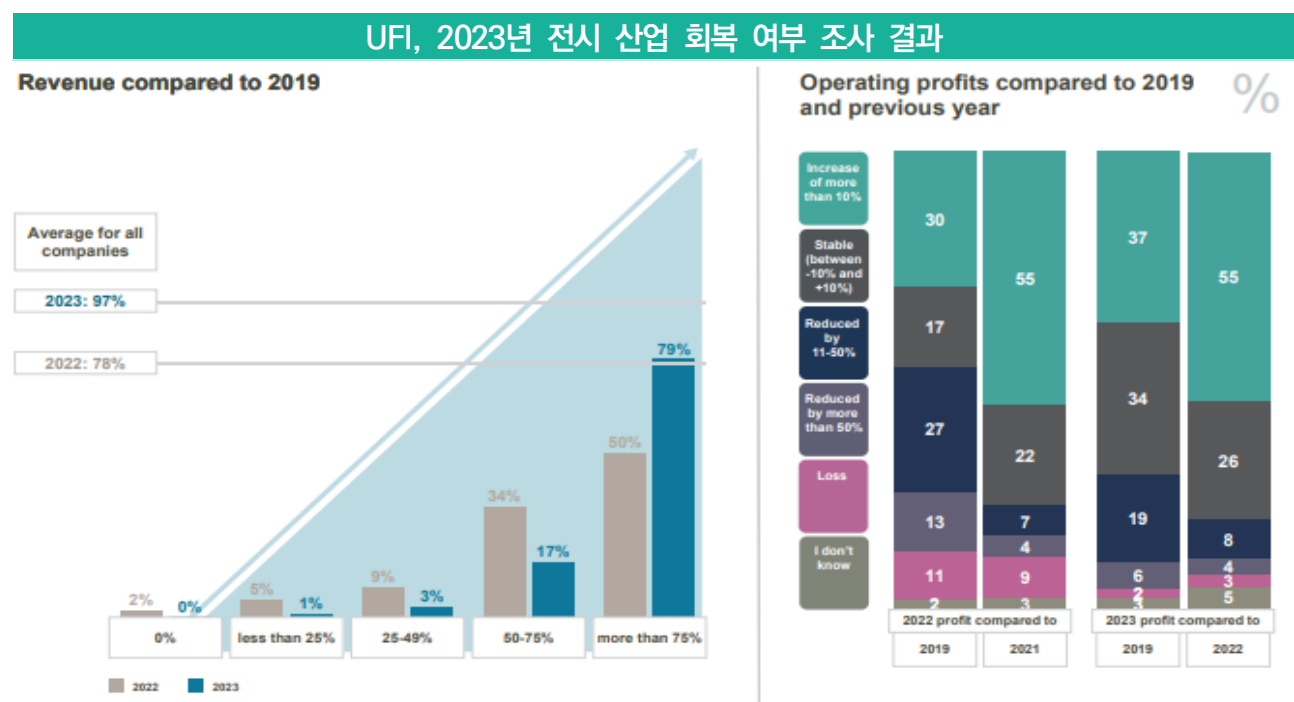
Situation of the industry operations in the 1st half of 2023, and current predictions for the 2nd half of 2023



■ 국제 전시산업의 회복(매출액)

2022년 국제 전시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9년 매출 규모를 회복하였다. 또한 2023년의 전시산업 매출액은 2019년과 유사한 규모 혹은, 2019년의 매출액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스페인, 호주는 2022년 국제 전시기업 매출의 평균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보였으며, UAE, 영국, 인도의 2023년 매출액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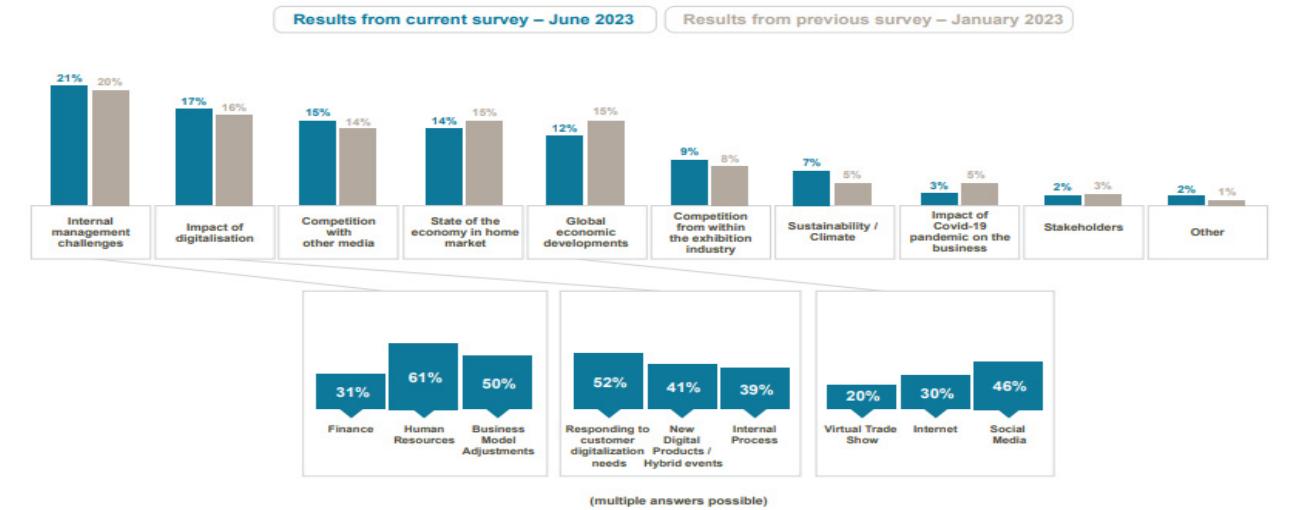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79%는 2023년 2019년의 75% 이상의 전시산업 매출액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7%, 2019년 대비 10% 내외의 증감을 기록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4%를 기록하였다.

■ 2023년 국제 전시산업 이슈

2023년 국제 전시산업 현안에 대해 응답자의 21%는 인력 부족,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재무 등의 '내부적 관리 문제'에 응답하였고, 17%는 고객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새로운 디지털 장비 및 하이브리드 이벤트 개최 등의 '디지털화'에 응답하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응답한 응답자는 3%에 그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3년 국제 전시산업 이슈



■ 국제 전시산업의 향후 5년 전망

향후 5년간 국제 전시산업의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를 물어본 결과 ‘변화된 고객의 기대’, ‘직원 채용’, ‘디지털화’, ‘기후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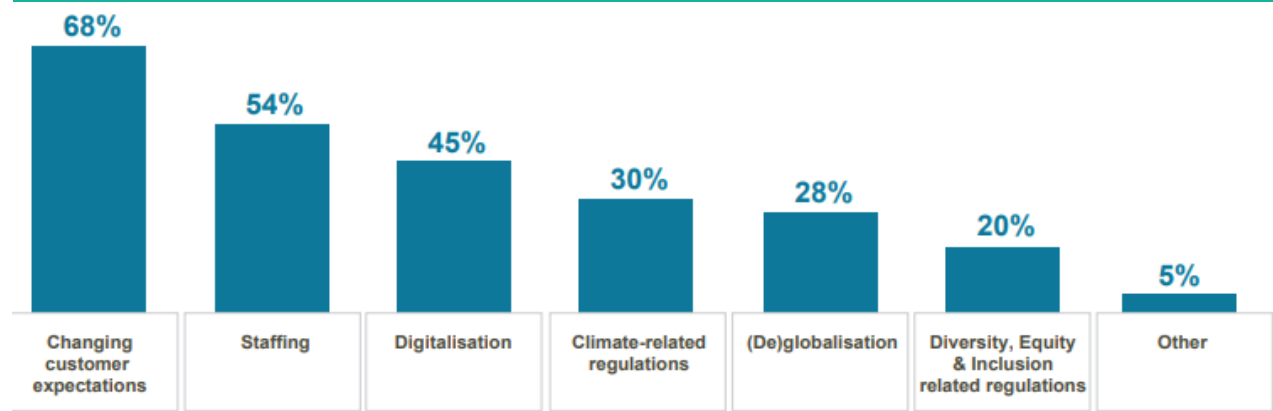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응답자의 66%는 ‘변화된 고객의 기대’가 국제 전시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통된 응답이었으며, 북미 지역은 ‘직원 채용’을 향후 5년간 국제 전시산업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54%는 ‘직원 채용’을 비즈니스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북미 지역 외에도 독일, 호주, 인도 등에서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약 45%는 ‘디지털화’가 비즈니스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특히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및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후 규제’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향후 5년 국제 전시산업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요소



■ 국제 전시산업과 디지털화

전시산업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4%는 ‘기존 전시상품에 디지털 서비스/제품(앱, 디지털 광고 및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경험을 추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 세계 55%의 응답자는 ‘내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했으며 이는 1년 전인 2022년(49%)에 비해 6%p 상승한 수치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67%)을 기록하였다.

향후 5년간 국제 전시산업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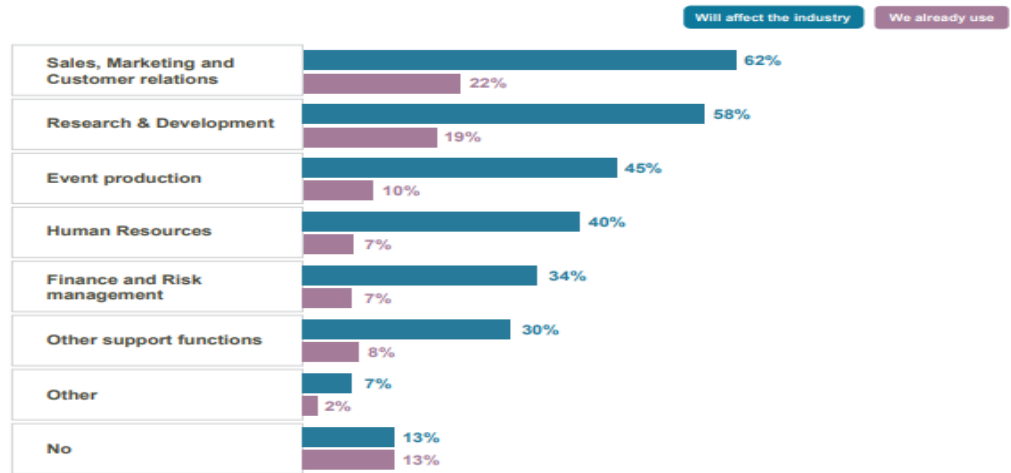
■ 국제 전시산업과 생성형 AI

국제 전시산업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전시산업 내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 업무는 ‘영업, 마케팅 및 고객 관계’ (62%), ‘연구 및 개발’ (58%) 그리고 ‘이벤트 제작’ (45%), ‘인력 채용’(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생성형 AI의 사용이 더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 전시산업과 생성형 AI

Potential impact on exhibitions and current use of “generative AI” applications like ChatGPT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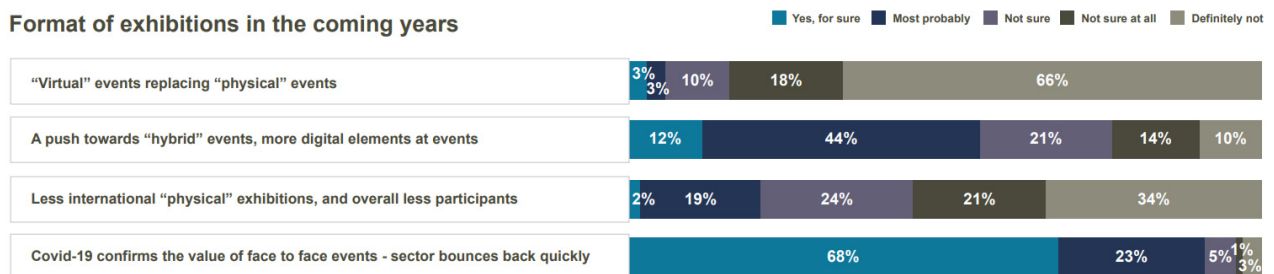
■ 향후 국제 전시의 형태

코로나19 이후 가상 이벤트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직접 대면 이벤트가 전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6%는 ‘가상 이벤트가 직접 대면 이벤트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상과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직접 대면 회의의 참가자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는 전체의 21%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이벤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직접 대면 이벤트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8%를 기록하였다.

향후 5년간 국제 전시산업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Format of exhibitions in the coming years



상기 자료는 UFI에서 발간한 ‘31st UFI Global Exhibition Barometer’의 일부를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최고의 아시아 레저도시' 선정 (Global Traveler, 제11회 Leisure Lifestyle Awards)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 세계적인 여행 전문지인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최한 '제11회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즈(11th Leisure Lifestyle Awards)'에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Best Leisure Destination in Asia)**로 선정되었다.

'23년 Global Traveler Leisure Lifestyle Awards 수상 이미지



출처: Global Traveler

Global Traveler는 2004년 미국에서 창간된 글로벌 트래블러는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월 100만 회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 수를 보유한 유력 매체이다.

2013년부터 매년 잡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대륙(지역)별 추천 레저 여행지를 선정하는 △레저 라이프스타일 어워즈(이하 “레저 어워즈”)를 발표하고 있으며 MICE 우수 도시, 항공사, 호텔 등 관광 분야별 최고를 시상하는 △GT Tested Reader Survey Awards(이하 “GT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레저 어워즈’는 △아시아의 한국-서울 △유럽의 튀르키예-이스탄불 △남아메리카의 파나마-파나마시티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고의 레저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은 전년도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이후 사상 첫 1위를 달성하였다.

대륙(지역)별 레저 여행지 수상지역

순위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1	서울(대한민국)	이스탄불(튀르키예)	파나마시티(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2	싱가포르(싱가포르)	리스본(포르투갈)	보고타(콜롬비아)	잠비아
3	푸켓(태국)	포르투(포르투갈)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세이셸
4	도쿄(일본)	피렌체(이탈리아)	몬테비데오(우루과이)	모로코
5	타이베이(대만)	세비야(스페인)	산티아고(칠레)	케냐

출처: 2023 Leisure Lifestyle Awards, Global Traveler

서울은 MICE 우수 도시, 항공사, 호텔 등 관광 분야별 최고를 시상하는 ‘GT 어워즈’에서도 2015년부터 8년 연속 최고의 MICE 도시(Best MICE City)²⁾로 선정되었고, 미국 타임지의 ‘22년 세계 최고의 장소’ 50개 도시 중 하나로 뽑히는 등 선진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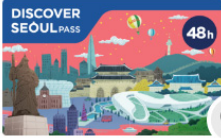

서울이 최고의 아시아 레저도시로 선정된 이유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우수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스마트 도시에 다채로운 문화·레저·관광 콘텐츠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리한 여행·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스커버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와 같은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스커버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는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는 시간제 프리패스 티켓으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 70여 곳에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교통, 쇼핑, 축제/행사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태권도, 난타, 요리, 공예 등의 원데이클래스와 한복 대여하기, 한강에서 요트타기 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실제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 기간(1~5월) 대비 올해 27%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도심 등산 관광센터’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

24 H	48 H	72 H
		
Discover Seoul Pass 24hours	Discover Seoul Pass 48hours	Discover Seoul Pass 72hours
Free 64 / Discount 102	Free 64 / Discount 102	Free 64 / Discount 102
KRW 50,000	KRW 70,000	KRW 90,000
BUY NOW →	BUY NOW →	BUY NOW →

출처: Discoverseoulpass

이 외에도 서울은 레저·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한류 체험 행사 및 여행코스 등 K-콘텐츠와 접목한 관광 수단과 행사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5월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서울페스타 2023’을 개최하고, 6월에는 서울 명예관광 홍보대사인 BTS와 협업하여 ‘BTS 10주년 페스타’를 진행하였다.

2)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의 산업이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

‘서울페스타 2023’은 K-팝 콘서트, K-컬처 체험존, 한강 드론 라이트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고, 방문객의 3분의 1을 외국인이 차지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BTS 페스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BTS가 방문한 서울의 13개 주요 명소를 선정해, ‘서울 방탄투어’ 지도를 출시하고, 구역별로 행사 부스를 설치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축제 기간에 국내를 찾은 외국인 수는 전월(5월) 동 기간 대비 13% 증가하였고, 행사 당일 약 40만 명의 방문객 중 12만 명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산되었다.



출처: 서울관광재단

이번 아시아 최고 레저도시 수상은 관광도시 서울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하고, 관광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엔터투어먼트(Entertourment)³⁾ 도시 서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서울 관광 상품이 쇼핑에 집중되어 다양한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케이팝 공연과 연계한 지역관광이 증가하며 다양한 관광·레저상품이 출시되고, 인바운드 관광 시장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K-콘텐츠 팬들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해진 방한 여행객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 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글로벌 한류 팬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코스 총 49선을 선보였으며 여기에는 한옥마을, 재래시장, 해수욕장 등 기존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나 한강공원, 카페 등 그동안 관광지로 인식되지 못했던 장소나 최근 K-콘텐츠에 등장한 촬영지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인 서울과 강원, 부산, 경주 등이 연계되어 엔터투어먼트(Entertourment)가 서울뿐 아니라 인바운드 관광시장 전체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투어(Tour)의 합성어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된 관광을 뜻함

한류 관광 대표코스 49선 중 일부 목록

상품명	대표코스
BTS 발사취만 5일 동안 함께하기	하이브/양평서후리숲/대장금파크/춘천레이크192/위봉산성/아원고택 외
가장 큰 놀이터, 한국에서 K-콘텐츠 즐기기	북촌한옥마을/방산시장/안동하회마을/성희여자고등학교 외
3박4일 서울 & K-POP 프리미엄 투어	하이커그라운드/YG엔터테인먼트+더세임카페/반포한강공원
5D4N Seoul + Gangwon KWAVE Tour	대관령하늘목장/맹방해변/하이커그라운드/북촌한옥마을감고당길
서울-경주-부산 7박 8일	SM엔터테인먼트/망원한강공원/동궁과 월지/해동용궁사/남포동BIFF거리 외

출처: 한국관광공사

상기 내용은 서울관광재단의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단 활용이나, 재창작을 금지합니다.
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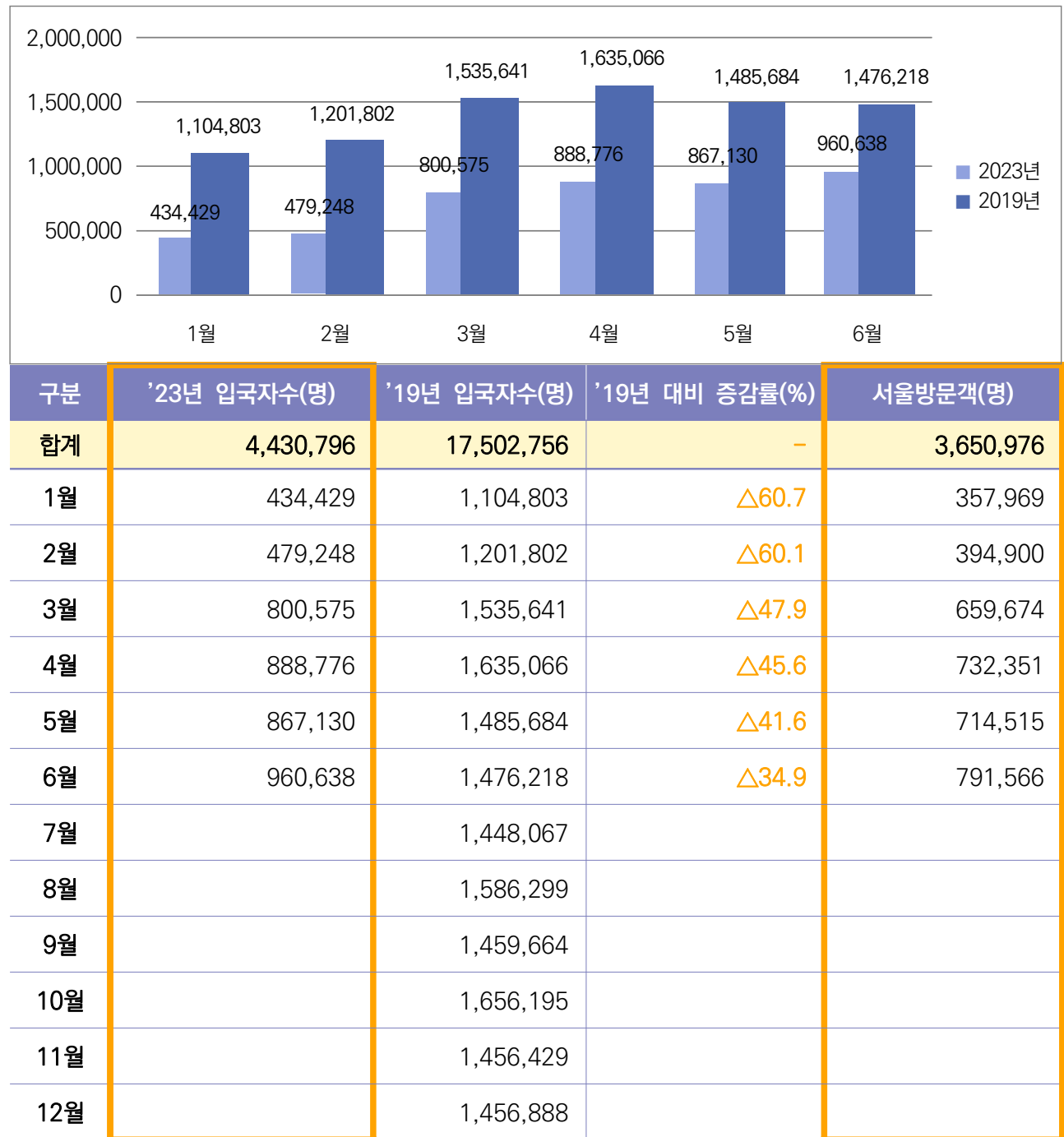
II. 국내 관광동향

1. 한국/서울 입출국 현황	26
2. 주요 국가별 한국/서울 방문통계	29
3. 2022년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통계	30
4. 서울시 관광사업체 현황	32

1. 한국/서울 입출국 현황

■ 2023년 월별 한국/서울 인바운드 통계

(단위: 명)



※ 서울방문객은 2022년 서울방문 비율 82.4%(외래관광객조사)를 적용해 추정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2000년대의 연간 방한 입국객은 600만 명을 맴돌았으나 한류 등의 인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1,750만 명을 기록하며** 입국객 신기록을 경신하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방한 입국객은 **'20년 250만 명, '21년 97만 명, '22년 3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인바운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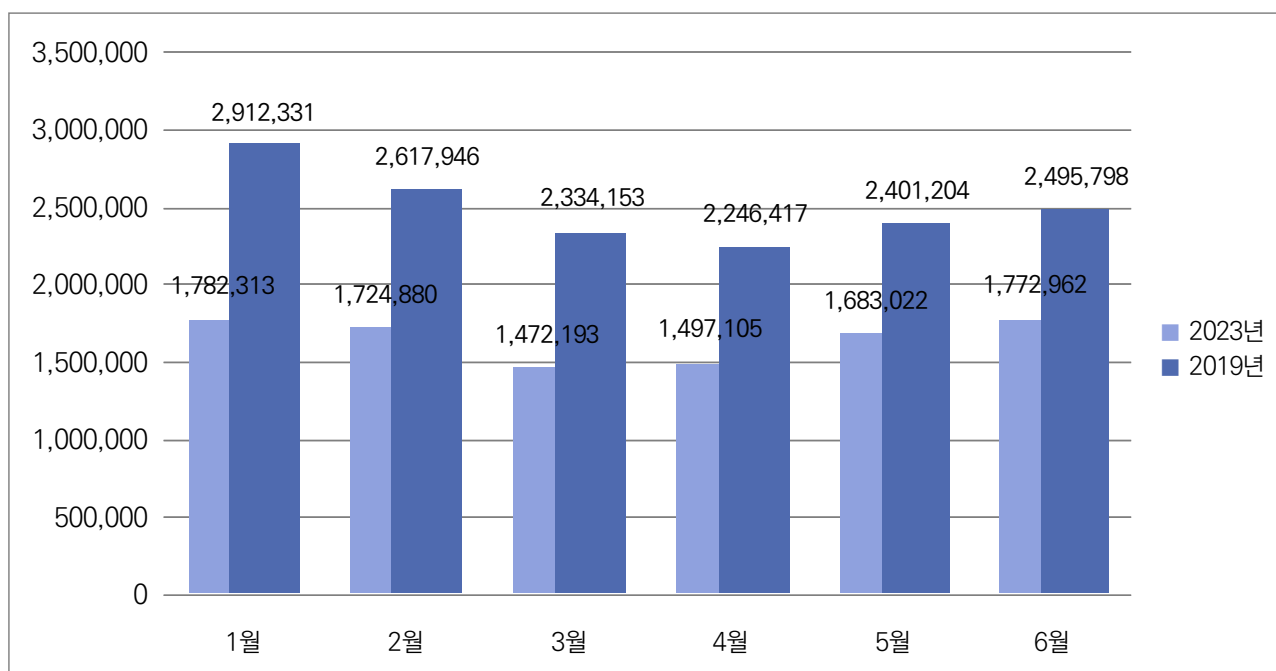
이후 3년이 지난 2023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항공편 증설 등 해외여행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방한 관광객 수도 빠르게 증가세를 띄며 아시아주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인바운드 외래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의 방한 관광객 수는 960,6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1.9% 증가하였다.**

다만, 이는 **2019년 동월 대비 34.9% 감소한 수치로** 관광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 2023년 월별 아웃바운드 통계

(단위: 명)



한편, 2023년 6월의 내국인 출국자 수는 1,772,962명으로 2022년 동월 대비 329.3%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및 관광비자 발급 재개 등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23년 월별 아웃바운드 통계

(단위: 명)

구분	'23년 출국자수(명)	'19년 출국자수(명)	'19년 대비 증감률(%)
합계	9,932,475	28,714,247	-
1월	1,782,313	2,912,331	△38.8
2월	1,724,880	2,617,946	△34.1
3월	1,472,193	2,334,153	△36.9
4월	1,497,105	2,246,417	△33.4
5월	1,683,022	2,401,204	△29.9
6월	1,772,962	2,495,798	△29.0
7월		2,642,585	
8월		2,427,634	
9월		2,049,830	
10월		2,153,847	
11월		2,090,192	
12월		2,342,310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2. 주요 국가별 한국/서울 방문통계

■ 주요 국가별 인바운드 통계

(단위: 만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미국	4.9	4.6	8.6	10.9	10.2	12.1							51.3
일본	6.7	9.4	19.2	12.8	18.4	19.7							86.2
중국	2.5	4.6	7.3	10.6	12.8	16.8							54.6
필리핀	1.6	1.4	2.5	3.5	2.8	2.9							14.7
베트남	2.2	2.9	3.5	4.1	2.9	3.6							19.2
태국	2.6	2.8	4.3	5.4	3.2	2.5							20.8
싱가포르	1.3	1.2	3.4	3.1	3.1	3.5							15.6
인도네시아	1.3	1.4	1.9	2.3	2.3	2.2							11.4
캐나다	1.0	0.9	1.7	2.1	2.0	1.5							9.2
대만	4.9	4.8	6.4	7.7	6.7	9.7							40.2
합계	43.4	47.9	80.1	88.9	86.7	96.1							443.1
'19년 대비 증감률(%)	△60.7	△60.1	△47.9	△45.6	△41.6	△34.9							0

※ 한국관광통계(통계법 제 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시간 소요로 최신 데이터까지 기재

주요 방한 국가의 입국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6월 가장 많은 방한 입국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196,512명)으로 뒤이어 중국(168,035명), 미국(121,378명), 대만(97,365명), 베트남(35,84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1월 2.5만 명에서 6월 16.8만 명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8월 10일 중국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78개국에 자국민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향후 중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월까지 가장 많은 방한 관광객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86.2만 명), 중국(54.6만 명), 미국(51.3만명), 대만(40.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3. 2022년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통계

■ 2022년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통계

(단위: 명)

구분	롯데월드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북한산
합계	4,516,912	3,398,658	3,382,603	6,700,861
1월	300,514	198,633	76,064	506,911
2월	218,464	171,091	70,347	471,534
3월	188,057	129,276	76,250	528,057
4월	345,880	150,665	227,831	627,695
5월	375,812	345,943	519,982	730,996
6월	304,605	306,036	259,455	563,969
7월	414,103	405,690	167,912	557,817
8월	416,971	471,606	201,280	484,060
9월	376,091	213,145	531,326	558,473
10월	600,599	293,424	647,843	713,886
11월	416,591	341,137	369,167	572,413
12월	559,225	372,012	235,146	385,050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2022년 서울의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곳은 롯데월드(4,516,912명)이며 뒤이어 국립중앙박물관(3,398,658명), 경복궁(3,382,603), 덕수궁(2,696,402), 서울시립 미술관 본관(2,452,057), 창덕궁(1,186,36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산의 2022년 방문객 수는 6,700,861명으로 2021년 7,362,704명 보다 8.99% 하락한 수치를 보였지만 2019년 5,574,539명, 2020년 6,561,211명에 비해 증가하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여행 형태로 인해 아웃도어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분			2019년	2022년	'19년 대비 증감률
종로구	경복궁	내국인	3,874,837	3,164,299	△18.3%
		외국인	1,471,909	218,304	△85.2%
		합계	5,346,746	3,382,603	△36.7%
	종묘	내국인	389,642	265,635	△31.8%
		외국인	60,756	20,985	△65.5%
		합계	450,398	286,620	△36.4%
	창경궁	내국인	780,607	849,438	8.8%
		외국인	93,717	38,368	△59.1%
		합계	874,324	887,806	1.5%
	창덕궁	내국인	1,238,410	1,044,875	△15.6%
		외국인	546,648	141,486	△74.1%
		합계	1,785,058	1,186,361	△33.5%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내국인	1,319,992	928,726	△29.6%
		외국인	159,203	-	-
		합계	1,479,195	928,726	△37.2%
	덕수궁	내국인	2,044,800	2,593,264	26.8%
		외국인	368,796	103,138	△72.0%
		합계	2,413,596	2,696,402	11.7%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내국인	1,804,192	2,452,057	35.9%
		외국인	44,011	-	-
		합계	1,848,203	2,452,057	32.7%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국인	3,215,625	3,328,379	3.5%
		외국인	138,464	70,279	△49.2%
		합계	3,354,089	3,398,658	1.3%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내국인	76,844	104,197	35.6%
		외국인	4,003	1,778	△55.6%
		합계	80,847	105,975	31.1%
	세종대왕기념관	내국인	5,891	2,247	△61.9%
		외국인	-	-	-
		합계	5,891	2,247	△61.9%
노원구	태릉·강릉· 조선왕릉전시관	내국인	97,811	78,722	△19.5%
		외국인	543	106	△80.5%
		합계	98,354	78,828	△19.9%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내국인	285,723	245,998	△13.9%
		외국인	308	-	-
		합계	286,031	245,998	△14.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국인	968,375	305,711	△68.4%
		외국인	35,314	7,196	△79.6%
		합계	1,003,689	312,907	△68.8%
강남구	선릉·정릉	내국인	360,142	410,175	13.9%
		외국인	22,028	632	△97.1%
		합계	382,170	410,807	7.5%
송파구	롯데월드	내국인	5,786,118	4,516,912	△21.9%
		외국인	-	-	-
		합계	5,786,118	4,516,912	△21.9%
	서울스카이	내국인	1,369,800	1,126,670	△17.7%
		외국인	-	-	-
		합계	1,369,800	1,126,670	△17.7%
	아쿠아리움	내국인	1,268,073	1,124,489	△11.3%
		외국인	-	-	-
		합계	1,268,073	1,124,489	△11.3%
북한산		합계	5,574,539	6,700,861	20.2%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4. 서울시 관광사업체 현황

■ 서울시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3년 1분기			2019년 1분기		2022년	
	사업체 수	구성비	증감률	사업체 수	구성비	사업체 수	구성비
전체	11,963	100.0%	2.6%	11,660	100.0%	11,363	100.0%
여행업	8,424	70.4%	△1.2%	8,567	73.5%	7,808	68.7%
관광숙박업	458	3.8%	0.1%	441	3.8%	473	4.2%
관광객이용시설업	1,450	12.1%	2.6%	1,148	9.8%	1,420	12.5%
국제회의업	824	6.9%	1.9%	607	5.2%	818	7.2%
카지노업	3	0.0%	0.0%	3	0.0%	3	0.0%
유원시설업	211	1.8%	△0.6%	276	2.4%	217	1.9%
관광편의시설업	593	5.0%	△0.2%	618	5.3%	624	5.5%

※ 2023년 1분기 증감률은 2019년 1분기 대비 증감률을 의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http://www.ekta.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가 발표한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2023년 1/4분기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관광사업체 수는 11,963개로 2019년 대비 303개(2.5%)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2020년 11,281개, 2021년 11,210개, 2022년 11,363개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2019년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 국내 관광도 본격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폭발적인 캠핑 수요 증가로 인한 야영장업의 증가가 이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III. 해외 관광동향

1. 국제 인바운드 통계	34
2. 국제관광 회복세 현황과 전망(UNWTO)	35

1. 국제 인바운드 통계

■ '23년 국가별 인바운드 통계

(단위: 명)

구분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대만
합계	4,430,796	10,711,727	2,702,081	5,574,969	12,914,691	6,279,520	2,179,745
1월	434,429	1,497,472	464,168	871,162	2,144,948	931,680	254,359
2월	479,248	1,475,455	466,032	932,969	2,113,550	957,840	369,098
3월	800,575	1,817,500	475,643	895,425	2,219,040	1,020,000	486,171
4월	888,776	1,949,100	458,083	984,146	2,182,100	1,130,000	553,211
5월	867,130	1,898,900	389,288	916,257	2,013,852	1,110,000	516,396
6월	960,638	2,073,300	448,867	975,010	2,241,201	1,130,000	509,69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일본: 일본정부관광청(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

※ 필리핀: 필리핀관광청(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Tourism, DOT)

※ 베트남: 무역경제(Trading Economics)

※ 태국: 태국관광체육국(Ministry Of Tourism & Sports, MOTS)

※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광분석 네트워크(Singapore Tourism Analytics Network, STAN)

※ 대만: 대만관광뷰로(Tourism Bureau, M.O.T.C)

2. 국제관광 회복 현황과 전망(UNWTO)

■ 머리말

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따르면, COVID-19 대유행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제 관광 수입은 2조 6천억 달러 감소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국경 폐쇄의 장기화와 규제 강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손실의 40%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유럽은 전 세계 손실의 30%에 해당하는 약 7,7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3년 제1분기 국제 관광객 수는 약 2억 3,404만 명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맞이하였으며, 이후 각국의 관광업계에서는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복시키고 본격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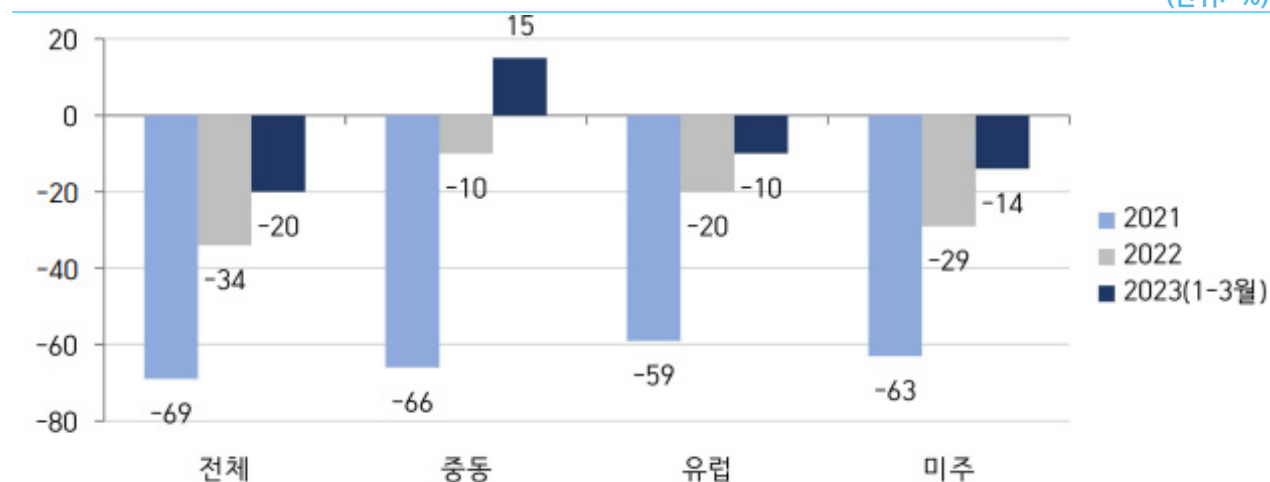
■ 국제 관광객 수

2023년 1분기 팬데믹 이전의 80% 회복

국제 관광객 수는 중동과 유럽에서의 강력한 회복세 덕에 2023년 1분기에 2019년 1분기 대비 80%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분기 대비 66%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 1분기 3개월 동안 약 2억 3천 5백만 명의 관광객이 전 세계를 여행했는데, 이는 2022년 동일 기간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2019년 대비 연도별 입국객 증감률

(단위: %)



출처: UNWTO(세계관광기구)

특히 중동은 2019년 1분기 대비 15% 이상의 입국객 수를 기록하고 있어,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의 관광목적지인 유럽은 90%의 관광 입국객 수 회복률을 보였으며 미국 연방여행관광국(NTTO)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럽으로의 여행은 올해 초부터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118%의 회복률을 보였다.

■ 국제 관광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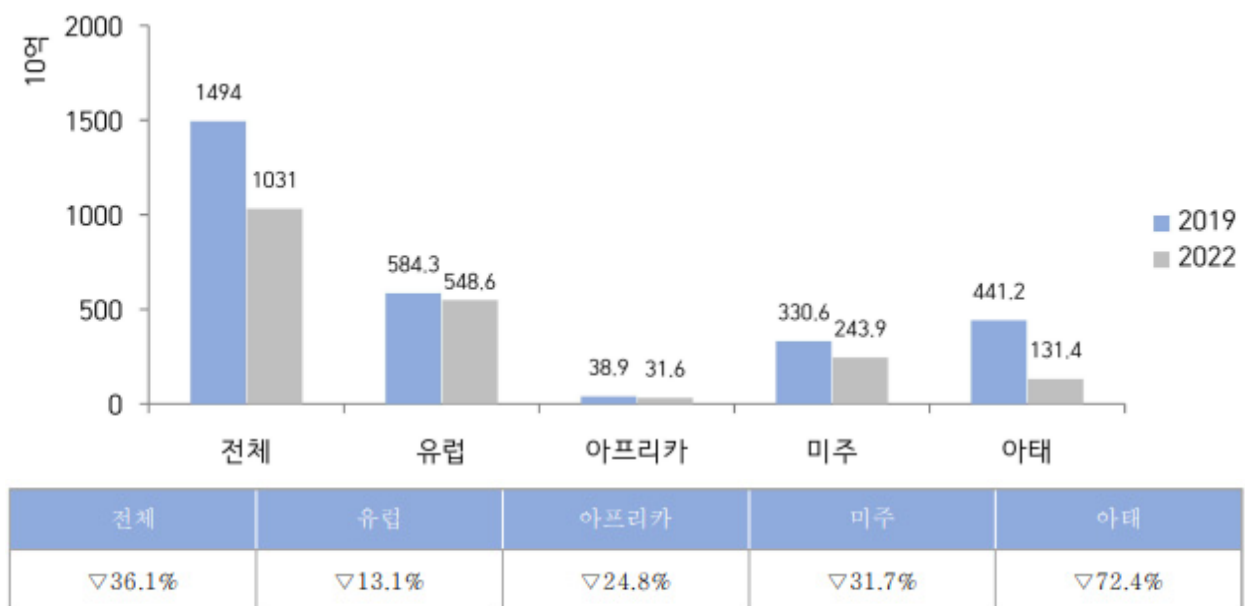
2022년 1조 달러 회복, 팬데믹 이전의 65% 수준까지 상승

국제 관광수입은 2022년 강하게 반등하여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기록했고, 몇몇 목적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이는 2019년 국제 관광 수입 대비 65%의 회복률을 기록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 2019년의 66% 수준을 기록한 국제선 입국 수치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대륙별 2019년, 2022년 관광수입 및 2019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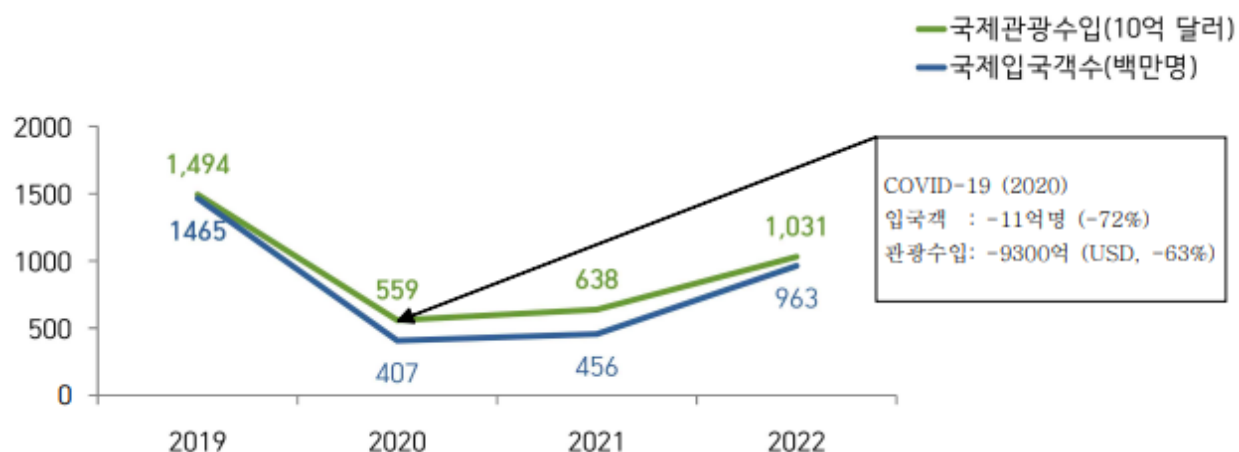
(단위: 달러)



출처: UNWTO(세계관광기구)

유럽은 2022년 5,50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기록하며 2019년의 87% 회복률을 보였으며, 아프리카는 팬데믹 이전 수입의 75%, 중동은 70%, 미주는 68%를 회복했다. 이러한 회복률은 수치의 반등과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2022년 국제 입국객 수와 관광 수입



출처: UNWTO(세계관광기구)

■ 산업 지표

[여객 항공 수송]

IATA에 따르면, 전 세계 여객 운송은 2023년 1분기에 전년 대비 58% 증가한 유상승객거리 (revenue passenger-kilometers, RPKs)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유상승객거리(RPKs)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86%를 회복하며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항공 시장에서의 강세가 회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역별로는 북미의 유상승객거리(RPKs)는 2019년 수준의 95%, 중동은 92%를 회복했으며, 유럽의 유상승객거리(RPKs -15%)는 지역 내에서 국제 교통량이 활발해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 하였으나,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각각 16%와 11%씩 감소했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지역의 유상승객거리(RPKs)은 여전히 2019년 대비 40% 낮은 수치이지만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숙박]

세계의 객실 점유율은 2023년 1월 54%에서 2023년 3월 66%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3년 3월에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67%의 객실 점유율을 보였으며, 미주 65%, 유럽 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오세아니아, 카리브해, 북유럽 모두 72%의 객실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중앙아메리카가 69%, 동북아 67%의 점유율로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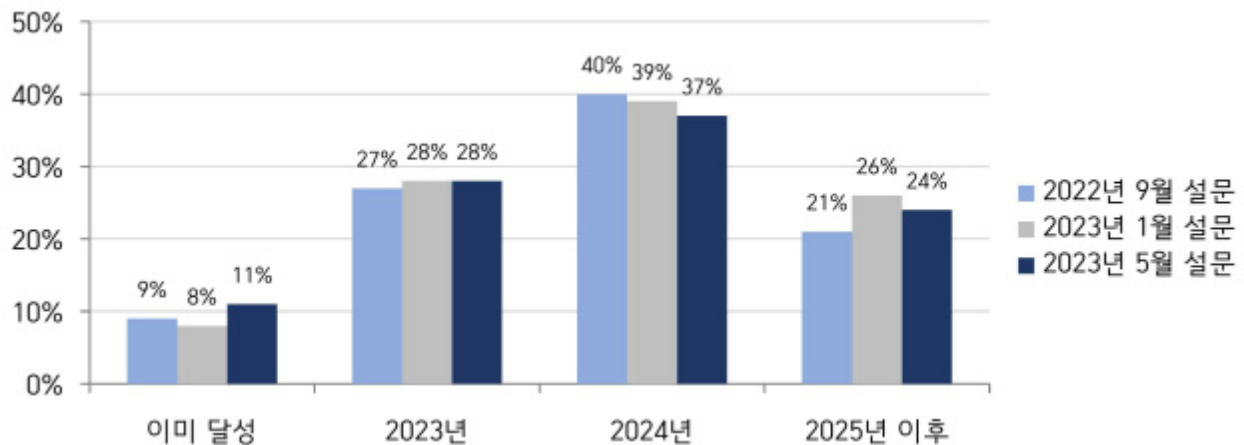
■ 당면 과제 및 전망

2024년까지 국제관광,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 어려울 것

UNWTO의 전문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이 운송 및 숙박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2023년 국제관광의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는 가성비 여행 등 여행 행태 또한 변화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제관광이 '2024년 이전'(37%)이나 '2025년 이후'(24%)에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답했으며, 약 28%만이 2023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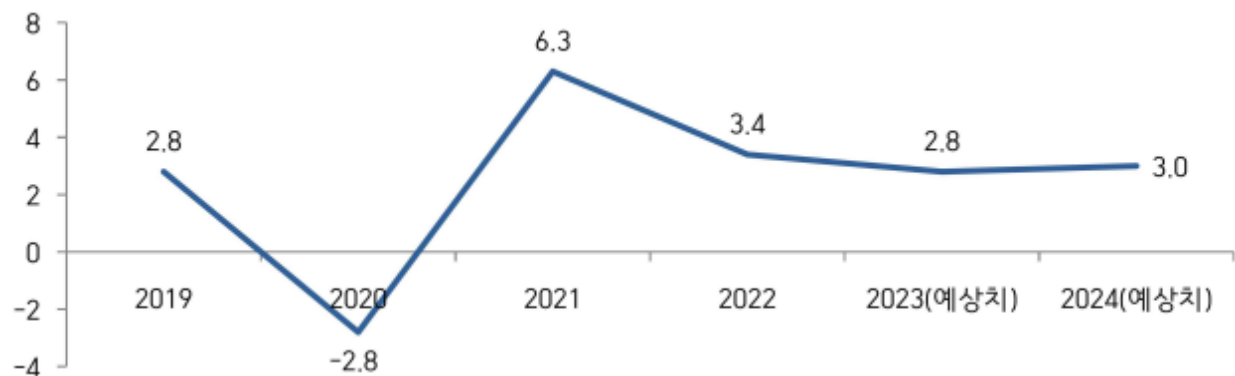
전문가 설문 | 본인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언제쯤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출처: UNWTO(세계관광기구)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2023년 4월)에서 금융권 혼란, 고물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4%에서 2023년 2.8%로 둔화되다가 2024년 3.0%로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를 "Rocky recovery(험난한 성장세)"로 표현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출처: UNWTO(세계관광기구)

경제 둔화는 선진경제권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으며,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8%로, 미국은 2.1%에서 1.6%로 감소할 수 있고, IMF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융권의 긴장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세계 생산량은 2.5%로 더 둔화될 수 있어 관광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은 UNWTO에서 발간한 'World Tourism Barometer'의 내용을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연구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관광연구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